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승인 권고'

- 최종 확대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5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한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경계를 대폭 확대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을 승인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하였다. 또한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서 정한 세계 유산 기준과 완전성, 보호 및 관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 등재기준 10번 :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멸종위기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 서식지

이번 2단계 확대 등재 권고는 기존의 세계유산에 ▲ 여수갯벌, ▲ 고흥갯벌, ▲ 무안갯벌, ▲ 서산갯벌이 더해져 구성요소와 유산의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등재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갯벌」은 총 6개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된다.

*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

한편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4개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

받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 갯벌 지역을 포함하는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이번 확대 등재 권고와 함께, 향후 잠재적이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추가 갯벌 지역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어업방식 및 갯벌 자원 채취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서해 생태계와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서식지 보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의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의 갯벌 2단계」의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관련 지방정부, 지역사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붙임 사진 자료. 끝.

담당 부서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윤정 (042-481-4841)
		담당자	사무관 어수미 (042-481-484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51-773-5310)
		담당자	사무관 이서영 (051-773-5313)